

충북경제 Issue & Trend가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에 기여하는 장이 되길...



원 장 이 수 희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충청북도,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추세 그리고 관련 현안들은 무엇인가.

서로운 전변을 앞두고 여러 해 동안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활발히 논의되었던 화두 중 하나로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을 들 수 있다.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더 이상 낯선지 않은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는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층과 같이 세계경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함께 승리는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러한 변화는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또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해 WTO 도하라운드(DDA)가 분말에 그친 것에서 보듯, 세계는 호혜적 쌍무주의에 기초한 자유무역협정과 지역공동체의 확산을 통해 기미줄(Hub & Spoke)처럼 엮어가면서 각국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국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세계무역질서의 근간이 되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후속적으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상징되는 다자간 무역질서의 오산이래 수출주도의 외향적 성장전략을 성공적으로 지속해왔다. 그러나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저도적 피로의 국제금융환경에의 노출에 대한 준비미흡 등으로 야기된 환란이후 우리나라는 세계화추세에 따른 대외개방의 폭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FTA와 지역주의에 상징되는 쌍무주의 무역질서에 편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뒤늦게나마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로, 칠레와 싱가포르 등이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시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최, 근으로 을수록 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간생활에 있어 공간적 거리를 단축하고 시간적 가치가 축소함에 따라 모든 부문에 있어 실시간(real-time)과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적용범위가 넓혀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은 지난 10여 년간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에서



놀랄만한 생산성제고를 통해 세계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를 배경으로 상품과 기술의 생애주기가 단기화추세를 보이고 IT이외에 BT, NT 등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이 다양화함에 따라 국가와 기업간 경쟁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의 격화는 경제활동 그리고 생산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으로 하여금 국적은 물론 기업활동의 최적지역을 선택함으로써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0여년에 걸친 민선자치의 경험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노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바야흐로 지방에서 세계를 지향하는 세방화(Glocalization)추세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 산재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력, 모든 것이 이동가능하며 어느 지역에서도 실시간으로 활용가능한 시대에 접근함에 따라 소득창출과 경쟁의 기본단위인 기업을 유치하고 생산활동을 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유인확대와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지차제간 세계 속 경쟁은 보다 격화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어떠한 생태계에 속해 있던 개체의 경쟁우위는 지속적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모쪼록 이번 계간으로 창간호를 내게 된 “충북경제 Issue & Trend”가 충북의 세방화(Glocal Frontier for Chungbuk, Korea)를 지향하는 본원이 지역의 안테나와 나침반으로서의 역할과 기여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